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2001년도 표어 ◎

임하소서 성령이여(행1:8)

◎ 행동지침 ◎

- 1. 부흥과 성장이 있는 교회가 되도록 한다.
- 2. 민족과 국가를 위해 기도한다.
- 3. 인지와 증거가 있는 삶을 산다.
- 4. 내가 먼저 변하고 세상을 변화시킨다.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테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558-2107 www.seoulchurch.or.kr

교육은 미래의 생명

- 전교인 교회학교 학생 되어야 -

새 예배당에 입당하면서 우리 교회는 교회학교를 통한 교육하는 교회의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났다.

주일 I 부 예배 (9시)는 가족 예배로 나이와 상관없이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린 후 교회학교 분반 공부실로 각각 연령별로 흩어져 하나님 말씀공부와 소그룹을 통한 교제의 시간을 갖는다.

21세기 변화하는 세상에서 성경공부 중심의 소그룹 운동은 미래를 가름하는 생명과 같은 것이다. 점차 대형화되고 도시화하는 현대사회에서 이웃도 없이 교회에 관람자로 참석하는 정도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다주는 소그룹 성경공부반은 우리교회의 매력요 힘이 되는 것이다. 아직 정착되지 못한 부서도

있으나 부장을 중심으로 한 교사들의 정성과 희생으로 점차 안정권에 들어가면 교회에 큰 활력이 될 것이다.

II부 예배 참여자들은 조금 일찍 와서 성경공부반에 참여하거나 II부 예배 후 모이는 영어 성경공부반 모임에 참여하는 방법도 있다.

III부 예배는 청년예배로 예배후 대학부와 청년부 성경공부반에 참여한다.

개인기도실 열린다-3월5일부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교회는 기도하는 집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개인 기도실을 마련하였다. 3층 303호부터 310호실까지 8개의 기도실이 내일부터 개방된다. 이 기도실을 이용하려면 먼저 사무국에 가서 열쇠를 받고, 사용 후에는 본인 책임 하에 반환해야 한다.

차량등록증 받는다.

차량관리부에서는 효율적인 주차관리를 위하여 차량등록증을 받기로 하였다.

차량등록증 서류는 사무국에 비치되어 있다.

지난주 이모저모



제1회 서울 신학심포지움



2월 새가족 환영회



유년부, 초등부 겨울 성경학교

유아부 학부모 초청 간담회

사순절 시작하다.

교회력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사순절은 부활주일부터 주일을 뺀 40일 전부터 시작되므로 이 기간동안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와 경건의 시간을 가지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사순절 기간 중에 우리는 걸만 꾸미는 경건과 위선의 태도를 버리고 은밀히, 경건히 그리고 진정 참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야 할 것이다.

자비의 집 개장

- 헌 옷이나 가구 교환 장소로 -

구제위원회(위원장 김태기 장로)는 지하 3층에 자비의 집을 열고 성도들이 입지 않는 헌 옷이나 가구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가져갈 수 있는 물물교환실을 마련한다. 구제위원회는 3월19일(월)부터 개장기로 하고 성도들의 사랑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접수는 사무국에서 한다.

단기선교팀 희망자 접수 시작

서울교회는 입당감사 10대행사의 일환으로 오는 8월 10일부터 20일 까지 태국 치앙마이 산지족을 대상으로 단기선교팀을 파송한다. (자세한 내용은 4면 참조)

의료, 교육, 건축 등 다방면의 봉사자의 신청이 요청된다.

중등부 이상 어느 누구나 신청가능하며 신청기간은 3월 25일(주) 까지이며 사무국으로 신청바란다.

이번주의 말씀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님인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개역개정판 유다서 1:24-25)

To him who is able to keep you from falling and to present you before his glorious presence without fault and with great joy—to the only God our Savior be glory, majesty, power and authority, through Jesus Christ our Lord, before all ages, now and forevermore! Amen.

(Jd 1:24-25)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

이사야 42:18-25



이중윤 목사



선지자는 유대인을 듣지 못하는 자와 맹인이라고 공격을 합니다. 선지자는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보았으며 그분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 백성들을 듣지 못하는 자요 맹인이라고 한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않는 사람은 듣지 못한 자와 같고 맹인과 같습니다.

1. 우리는 보고들은 것을 지켜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바로 왕은 제앙을 받을수록 더 강박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이적을 많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시어 역사를 주관하시고 교회를 이끄심을 분명히 체험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의 역사 하심을 보기도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듣지 못하는 자요 맹인에 불과합니다.

이스라엘은 높은 곳에서 그들에게 비취는 빛을 보지 않기 위해 눈을 감았습니다. 그들을 식별력을 상실했습니다. 신체 조직 중 사용하지 않는 부분은 퇴화하기 마련입니다. 영적인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빛 보다 어둠에서 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영적 분별력이 없어집니다. "때가 이르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마를 스승을 많이 두고"(딤후 4:3).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나 지키지 않고 사람들이 하는 말은 쉽게 따라잡니다.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19절). 내 종이란 유대인과 제사장과 장로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자였습니다(말 2:7).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큰 소리로 자주 들려지는데 그들은 여전히 제 길로 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2.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의 결과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나"(21절). 하나님은 자기의 의로 우신 덕에 의해 백성들의 삶을 통해 그의 말씀을 빛내시려고 하셨으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에 옮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유대 백성들에게서 무시를 당했습니다. 말씀을 무시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천대했다는 것과 같습니다.

(1)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존귀하지 않게 되었다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롬 2:23-24). 하나님의 말씀은 존귀히 여기지 않게 된 것은 신자들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된 신자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를 높일 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 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2) 행함이 없는 믿음은 저열하다

마귀도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약 2:19). 마귀의 죄는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하기로 약속하고 불순종하는 것 역시 죄입니다. 이 죄는 불신의 죄보다 더 큰 것입니다. 무디는 이런 신자를 두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 ①너는 나를 주님이라 하면서 나에게 복종하지 않는구나
- ②너는 나를 빛이라 하면서 나를 보지는 않는구나
- ③너는 나를 길이라 하면서 나를 따라 행하지는 않는구나
- ④너는 나를 생명이라 하면서 나를 원치 않는구나
- ⑤너는 나를 지혜롭다 하면서 나를 따르지 않는구나
- ⑥너는 나를 아름답다 하면서 나를 사랑

- 하지 않는구나
- ⑦너는 나를 부요하다 하면서 내게 구하지 않는구나
- ⑧너는 나를 영원하다 하면서 나를 찾지 않는구나
- ⑨너는 나를 은혜롭다 하면서 나를 신뢰하지 않는구나
- ⑩너는 나를 높다고 하면서 나를 섬기지 않는구나
- ⑪너는 나를 능력 있다 하면서 나를 영화롭게 하지 않는구나
- ⑫너는 나를 공의롭다 하면서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 ⑬너는 나를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나를 찬양하지 않는구나
- ⑭그러므로 행함이 없는 자들아 내가 너를 정죄 할 때 잘못한다고 하지 말아라

(3)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유대인은 바벨론에 잡혀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불순종한 백성을 약탈자에게 넘기십니다(24절). 이런 환난을 당하면서도 저들은 죄를 깨닫지 못함으로 선지자는 탄식합니다(25절). 열매 없는 나무는 결국 썩혀 불에 던지움을 받을 것입니다.

3. 아직도 소망은 있다

이사야는 못 듣는 자에게는 들으라. 맹인들에게는 밝히 보라고 외칩니다(18절). 완전한 소경 상태와 희미해진 상태는 다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못 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둘 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보고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 도다'(20절). 바로 이것이 화근이 된 것입니다. "그 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사 29:18). 그 날은 메시아가 오시는 날입니다. 그 날에는 심판하시는 책의 말을 듣게 되고 맹인이 보게 됩니다. 그 날에는 다 심판의 소리를 듣게 되고 동시에 듣지 못하는 자가 듣고 맹인이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메시아가 오시면 말씀이 꿀송이 보다 더 달게 느껴지고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자력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메시아를 영접하는 일입니다. 그리하면 보지 못하는 자가 보고 앉은뱅이가 걷게 되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될 것입니다.

유아부 학부모 초청 간담회 후기 이양숙(10교구)

오늘 서울교회의 가장 나이 어린아이를 가진 부모 자격으로 '유아부 학부모 초청 간담회'에 참석했다. 아이를 혼자 남겨두고 돌아서며 혹시나 하는 미련을 갖는 부모의 심정은 모두 같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교회 유아부에서는 그런 미련한 생각을 버려도 될 만큼 아주 값진 프로그램으로 우리 아이들을 양육해 주신다. 단지 부모들이 예배만 편하게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예배시간을 통하여 기초부터 튼튼한 반석으로 가꿀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많은 기도와 사랑을 아끼지 않으신다. 아이들이 너무 어려 신앙교육이 부모와 함께 협력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루어진 오늘 간담회에서 '기독교인의 가정교육'에 대한 부모교육이 있었다. 교육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셨고, 교회와 가정에서 항상 일관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셨으며, 교회에서 배운 말씀을 집에서도 연결 지을 수 있도록 교육계획을 부모에게 알려줌으로써 협조를 구하셨다. 특히 구체적인 가정교육의 방법을 제시해 줌으로써 올바른 신앙관을 갖을 수 있도록 모범을 보이는 부모가 되도록 일깨워 주셨고, 아이의 양육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이었다. 또 항상 아이만 맡기고 찾아오는데 바빠서 선생님 얼굴 한번 제대로 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 시간을 통해 선생님을 직접 만나 아이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고, 찬양과 율동도 함께 하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항상 우리 아이들을 위해 부모이상으로 많은 기도와 사랑을 아끼지 않으시는 선생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우리 부모들도 함께 기도하며 동참하여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

70인 전도대 보고 - ①

탁경준 집사(5교구)

"하나님아버지! 말씀과 예배드림과 성도의 만남을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끝맺는 삶이 되게 하여주소서.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의 문이 열리는 기회가 생기게 하시고 주일마다 만났던 그 사람들을 우리 서울교회에서 다시 만나게 하여주소서. 주일 목사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처음오시는 새신자들의 가슴을 뜨겁게 태워주시고 깨어서 초롱빛 같은 눈동자로 교회당을 가득채워 주소서..." 오늘도 이런 기도를 마음속으로 드리며 오전11시경 약속된 상담회사를 방문했다. 그곳 사장과 전무님 두분과 상담을 나누던중 전무님은 평림교회에 나가시고 사장님은 불교를 깊이 믿으시는 분임을 알게 되었다. 나는 사장님에게 시종일관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두시간의 상담을 마쳤다. 한체 오찬을 하게 되어 식사기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그분들의 회사를 위해, 상담의 성공을 위해, 건강과 아름다운 만남을 위해, 좋은 식사를 위해 뜨겁고 간절한 기도를 마쳤다. 헤어질 때 사장님은 "서울교회 위치가 어디쯤 입니까?" "어떻게 갑니까?" 물으셨다. 하나님 오늘도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 사장님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영없이 눈이 내리는 오후였습니다.

수련회를 마치고

이인영(고등부 2학년)

3일간의 찬양과 기도, 그리고 교제를 통해 깨끗하고 순수하게 변화된 고등부 학생들의 가슴을 드러내기라도 하듯이... 하늘에선 티없이 맑은 하얀 눈이 내리고 있었다. 이 눈을 밟으며 우리는 집으로 향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서로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각자 그려보면서.....

더욱 거세어진 세상의 유혹 속에 물들었던 나에게 이번 수련회는 너무나도 중요한 계무장의 기회였다. 한동안 찬양을 잊고, 기도를 잊고 살고 있었다. 입에선 가요가 절로 흘러나왔고, 머리 속에는 세상적인 것들이 가득했었다. 그러나 주님께서서는 이러한 나를 고치시고자 서울교회로 인도하셨고, 수련회 시작 바로 몇일 전 NLC에 가입시키셨다. 수련회 찬양시간을 준비하며 난 조금씩 변화되어 가고 있었다. 입에선 어느새 가요가 아닌 찬양이 맴돌게 되었고, 수련회를 생각하며 하루를 다 보내게 된 것이다. 수련회가 시작된 22일, 아귀은 경직된 고등부 지체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은 맘속으로부터 변화되어 가고 있었다. GBS시간, 자신들의 꿈을 조심스레 계획하며, 목사님의 특강과 말씀을 들으며, 공동체 훈련시간 함께 웃고 땀 흘리며 우리는 하나가 되어갔다. 특히 찬양시간에 나는 놀라운 변화를 체험했다. 나 자신부터 모든 것을 내어 찬양 드리게 되었고, 첫날의 석고상 마냥 가식적인 박수만 치던 이들이 온 맘을 다해 찬양 드리게 된 것이다. 모두가 하나되는 모습을 보며 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인도하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렸다. 헤이 해져 있던 나의 신앙에 다시 불씨를 던져 넣었고, 많은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만났다. 그리고 나의 미래에 대해 신중하게 고민해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바라는 점이 있다면 수련회를 통해 불붙은 믿음과 찬양의 불길이 금세 꺼져버리지 않고 모두의 기도와 노력으로 언제까지나 활활 타오르기를 기도한다. 다시 한번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린다.



새로 왔어요 한가족 6명이 등록했어요.

이우태, 박정희 성도(1교구)-지혜, 지민, 채은, 진재

2월 첫 주로 기억된다. 네 아이를 이끌고 새가족등록실을 찾아와 등록하던 한 어머니, 아기 아빠는 안 오셨느냐고 물으니 병원에 응급환자가 생겨 못 나왔지만 다음 주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나오도록 하겠다며 함께 등록을 시켜달라던 박정희 성도. 남편 되시는 이우태 성도는 어김없이 그 다음 주에 네 아이들과 1부 예배에 참석하였다.

◎ 교회는 언제부터 다니셨는지요?

-5년 전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으나 연년생인 막내까지 생기고 교회는 멀고 해서 신앙생활을 거의 중단했었습니다. 마침 셋째 형님 네(이우진, 김일순 집사 가족:1월 등록 새가족)가 가까운 서울교회를 소개해서 결심하고 등록했죠.

◎ 등록하고 나신 소감은?

-타 교회에서 볼 수 없는 9시 가족예배가 있어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니 가족의 일체감도 생기고 아이들도 예배에 집중하는 것 같아요. 주일 아침 일찍 일어나 아이 네 명을 다 챙겨서 교회에 오려니 긴장감도 생기고 한편으로 게을렀던 신앙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 이우태 성도님은 주말에 더욱 바쁘시다면서요?

-예, 의사란 직업이 바쁘기도 하지만 특히 정형외과 의사는 주말에 응급환자들이 몰려 주일 성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저런 핑계로 거의 교회를 안 나갔는데 서울교회 등록 후 새로운 각오로 새가족부에서 교회와 성경에 관한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주말에 응급환자가 줄어들어 주일에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며 온전히 성수하길 소원합니다.

◎ 4명의 아이들이 좀 많지요?

-글쎄요. 세 명의 딸이 있을 때만 해도 별로 불편한 줄 몰랐습니다. 막내아들까지 낳고 보니 좀 바빠지더군요. 하지만 요즘은 서로 챙겨주고 양보하는 걸 보면 뿌듯하고 온 가족 6명이 나란히 앉아 예배드릴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탐방-멀티미디어팀 보이지 않는 봉사자

이제는 보편적인 단어가 된 멀티미디어의 사전적 의미는 두개 이상의 여러 미디어를 복합적으로 구성한 기기라고 정의된다. 최근에는 좀더 발전된 개념으로 컴퓨터 신기술 혁명의 총아로 불리며 멀티미디어는 문자, 그래픽, 음성 정보, 영상 정보 등과 같은 다양한 정보미디어를 하나의 객체로 통합시켜 활용하는 새로운 통합시스템을 의미한다. 우리 교회 내에서도 이대로 사장되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엄청난 양의 정보와 각종 자료가 존재하고 이를 가능한 한 효과적으로 수용하고 공유하기 위해서는 문자만을 사용한 단순한 방식의 정보 전달 및 표현 수단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따라서 하나 이상의 미디어를 효과적으로 통합한 멀티미디어의 활용은 필수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따라서 목회자료 개발팀, 매체 선교팀, 교육자료 개발팀의 3개 팀으로 구성된 우리 서울교회 멀티미디어 봉사단은 "하나님께서 우리 서울교회에 주신 사명과 꿈을 이루어 나가시는 일들을 멀티미디어의 활용을 통해 보조한다는 보조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무릎 꿇고 주님께 지혜를 간구하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라는 조철기 집사(멀티미디어 봉사단 단장)와 단원들에게 거는 기대는 클 수밖에 없다. 우리 서울교회의 멀티미디어 봉사단이 보다 실질적이고 유용한 멀티미디어 데이터 베이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도 많지만 보다 중요한 문제는 현재 사용 가능한 기술로 몇몇 사람이 아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와 자료를 원하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최적의 자료로 제공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일 것이다. 작년 하반기 첫 걸음을 시작한 멀티미디어 봉사단이 이제 올해는 좀더 활동영역을 넓혀 나가고 귀한 하나님의 멀티미디어 자료가 가득한 보물창고의 창고지기가 되기를 기도하며 멀티미디어 봉사단원들에게 격려를 보낸다.

김시환 (편집부)



시각적 예배를 위한 준비

사순절 회개의 기도

박두호 장로 (7교구)

독생자 예수그리스도의 피로 저희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번 사순절을 맞이하여 주님의 죽으심을 목상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가장 큰 고통을 겪으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죄악으로 무디어져 버린 저희들에게 지은 죄를 참회하고 거듭남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높은 자리보다 낮은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지옥으로 보내어서는 안될 무수한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의 아픔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주기보다는 반기에 익숙했던 저희들 이번 사순절에는 반기보다는 주는 사랑의 사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피 값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 서울교회는 목마른 영혼들의 안식처가 되기를 원합니다. 풍성한 하늘양식이 넘치는 푸른 초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응답과 축복을 날마다 체험하는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교회 입당감사와 축제위원회10대행사를 위하여
2. 새로 등록하는 가정 정착할 수 있도록
3. 농어촌100교회 운동을 통한 복음의 열매 맺도록
4. 온 교회 성도들이 주일 성경공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 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30분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사순절의 의미

이규정 목사

사순절은 교회력에 있어서 성탄절과 마찬가지로 신자들에게 중요한 절기 중의 하나이다. 사순절은 앵글로색슨의 '봄'이란 의미의 Lenen에서 왔다. 이 절기는 부활절을 위한 신앙의 성장과 회개를 통한 영적 준비의 시기이며, 교회력 중에서 주님의 수난과 죽음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때이다. 이 절기는 특별한 회개일인 속죄일(Ash Wednesday)에서 시작되어 성 금요일(Good Friday)의 슬픔과 비극 가운데 끝난다. 이 기간에는 금식하며 자기회개의 기회로 삼아지기도 한다.

사순절은 부활주일부터 주일을 뺀 40일 전부터 시작되므로 이 기간동안 자신을 돌아보며 지내는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다. 40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광야의 40일 간의 예수님의 금식, 시나이 산에서의 40일간의 모세의 사건, 무덤 속에 40시간 동안 계신 예수님, 부활에서 승천까지의 40일을 의미한다. 사순절의 근원은 초대교인들이 성찬식을 지켰던 일에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준비를 위해서 금식했던 것처럼 기독교인들이 성찬식 전에 금식했다. "사순절"의 역사적 출현을 살펴보면, A.D 325년 니케아 회의에서 정한 교회의 규칙에 40일간의 사순절이 언급되어 있고, 몇 년 후 아타나시우스의 목회서신에도 사순절과 부활절에 대한 준비의 말씀이 있다. 그러나 이때까지 사순절은 일정하지 않았다.

사순절을 지키는 의미로 보면, 중세기에는 주로 사순절을 회개의 시기로 지켰는데 종교개혁자들도 이 사상을 받아 들여서 공동기도문 중에 사순절 기도문의 주제를 "회개"로 삼았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실 일- 고경선 목사

이제 우리 서울교회도 주님의 말씀에 따라 단기선교의 적극적인 발걸음을 하게 되었다. 성령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이 있는 결과이다.

우리는 오는 8월 10일-20일까지 태국의 치앙마이 지역 산지 족을 섬기게 될 것이다. 교회도 짓고, 찬양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도 증거하며 봉사와 의료활동도 하게 된다. 중, 고, 대, 청, 장년 누구라도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베풀고 싶은 열정과 사랑이 있으면 된다. 사랑의 빛진 자들은 모두 동참하기 바란다. 선교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급히 도우실 것을 믿는다. 결단하고 단기 선교팀에 과감히 지원하기 바란다. 우리 서울교회가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성령의 역사를 회복하며, 젊은이가 헌신하고, 복음 증거의 능력을 배가시키는 축복의 시간이 될 것이다. 지원은 3월 25일 까지 사무국으로 하기 바란다.

동정

- 이승철 집사, (조은주 집사 - 4교구)는 2일 성남시 태평구 수정동에 인하회부파를 개업하였다.
- ☞ 금주 식사제공 가정 : 원복순 권사 가정 (2교구)

이중윤 목사 방송설교

기독교방송(HLKY 98.1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KK 1188K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교회약도

